



남원침구김광철 대표, 부안군에 마스크 5만장기탁

남원침구(대표 김광철)는 19일 부안군청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5만장(50만원 상당)을 기탁하였다.

남원침구는 부안군 행안면 농공단지에 위치한 침구 제조 및 도매 전문 기업으로, 1992년 메달베개 공장 '부김훈수'로 설립되어, 2009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는 등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업체이다.

김광철 대표는 "이번에 전달한 마스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 공무원 노조 연맹, 이웃돕기 후원물품 전달

전북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최지석)은 19일 전북 진안군 백운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흰마살에 100만원 상당의 복지 물품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지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 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물품으로 시설에서 필요한 물품을 발굴하여 후원해 그 의미가 더 깊다.

최지석 위원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을 드리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기초소방시설 무상대여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리산국립공원과 뱀사골 자동차 야영장과 달궁 자동차 야영장 등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19일 기초소방시설을 대여하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실내보다 야외활동을 하려는 상춘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남원소방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야외영장을 찾는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대여품목: 가정용 소화기, 투척용소화기, CO2보기, 화재경보기 등)

박덕규 소방서장은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취사도구 등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로 이어지면 급속한 연소확대로 인명피해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정적인 경영정상화 이뤄낼 것”

양영수 신임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포부



“MG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49년전 새마을금고가 출범한 이래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MG 순창새마을금고가 새롭게 출발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9일 향토화관에서 열린 순창새마을금고 제69차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양영수 회장(61)의 소감이다.

400여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는 1명의 후보민으로 등록된 양영수 이사장 후보가 회원들의 무투표 당선 동의를 얻어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양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MG 순창새마을금고를 위해 회원, 고객, 임직원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로 자유로운 소통과 금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동행경영'을 실천하고, 이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오직 회원의 권익 보호와 새로운 영업모델을 통해 '고객가치 확대' 및 '자산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역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도 약속했다.

양 이사장은 끝으로 "직원들의 여신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성과 증진을 이뤄내고, 외부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물론 사고 없는 건전대출 성장으로 경영수익을 반드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영수 이사장은 제4대 군의회 의장 제5대 순창군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순창C 회장, 순창 4-H 본부회장,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회장, 자활후견센터 운영위원장, 순창읍민회장을 등을 거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현재는 순창체육회 초대회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착착대피법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9일 화재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발견자에 의한 초기대처 능력향상을 위한 소소심플러스(+),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명 "착착 대피법"(침착하면 안전한 곳에 도착한다) 주제로,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20명이 참석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요령을 익히고 건물 내 옥내소화전을 이용하는 초기진화 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이 진행되었다.

소소심플러스는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과 함께 완강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응급상황 시 장애인 취약계층인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축협, 2021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

임실축협(조합장 한득수)은 최근 대학에 재학중인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30명의 대학생들에게 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올해도 장학금 전달식 진행이 불가한 관계로, 박홍수·양경식 조합원에 장학증서를 대표로 수여하는 것으로 전달식을 대신했다.

이 날 한득수 조합장은 "조합의 장학금이 밑거름이 되어 임실군 인재 육성을 위해 조합원 자녀 장학금을 전달해왔다"면서 "미려하나마 학업을 정진하는 데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진안군 용담면 '행복사랑플러스' 착한가게 2호점 탄생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 불황과 가계경제 위축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입금의 일부를 '행복사랑플러스' 사업에 가까이 후원한 사업체가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일 용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대표인 윤재준 면장과 전속이 위원장은 착한가게 2호점인 '정원재장' 대표 김정권 씨에게 '행복사랑플러스' 인증편을 전달식을 갖고 "소중한 기부금을 소외된 이웃에게 잘 쓰겠다"고 말했다.

'행복사랑플러스' 사업은 용담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복지 수요 및 위기 가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며 '착한가게'는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 가게가 '행복사랑플러스'에 동참해 매월 3만원 이상 정기기부하면 붙여주는 명칭이다.

김정권 정원재장 대표는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것이 진짜 돕는 것이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편 용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 지역특화사업의 명칭을 '행복사랑플러스'로 정하고 모금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상반기 목표액인 500만원에 대해 40% 달성하였다.

모아진 후원금은 용담면 마을복지계획에 반영하여 어려운 이웃의 복지증진에 사용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지역사회협의체, 독거 어르신 가구 주거환경개선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지역복지분과 위원들, 군청 사회복지과 및 무풍면 직원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모 어르신(70)의 가정에서 어질러진 가구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청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도움들이 합쳐 큰 도움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회복지업무에 참여하는 보람이며,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지역자활센터,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자원봉사센터, 무주인덕복지사, 어클럽, 장애



인생활이동지원센터, 무주군청 직원으로 구성된 지역복지분과 위원들은 올해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 청소, 방역, 도배, 장판교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

남원시는 지난 16일 금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금동야마을 골목생생센터에서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금동의 지역여건 및 쇠퇴산업에 대한 설명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활성화 계획에서는 '알공답공한 동행(同行), 금동이 마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토대미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골목상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동지구는 2019년부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남원에(愛) 마을화단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해 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